



# “더 큰 주님의 집을 짓기 위하여”

십이사도 지역 대표  
한 인 상 장로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을 자주 하고 또 들으면서도 그 참된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때가 찼다”라든지 “무르익었다”는 절박하고도 의미가 함축된 표현은 이 세상을 다시 통치하시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를 두고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것이면서도 너무도 분명한 임박함을 안고 그토록 태연할 수도 있고 편안할 수도 있는 나와 모든 사람의 생활에서 너무도 허망한 사려의 부채를 엿보게 됩니다.

언제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압축된 이 시한의 팽창과 축적을 허락하실 것이며 또 그것이 온전히 주님 한분만이 하실 일인가를 깊게 생각함으로써 1979년도 한해와 앞으로의 모든 이 땅의 주님의 사업에 대한 계획백서를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때는 임박했고” “도적같이 오실 주님” 이시면서 이 세상이 온전히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기 전에는 오시지 않을 주님이십니다. 말하자면 우리 신권 역원과 모든 성도들이 “걸음의 폭을 넓히고”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시온의 스테이크의 장막의 영토를 넓히는 일을 게을리 할수록 아픔의 함성과 혼란은 계속될 것입니다.

1979년에 이 나라 이 땅에 몇개의 시온의 스테이크를 세우겠느냐 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비논리적인 수도 있습니다. 현재 2개의 스테이크로 이루어진 한국 지역내에 거주하는 인구는 3천5백만으로 헤아려지며 이만큼의 주님의 자녀를 수용하려면 17,500개의 스테이크가 필요할 것입니다. 2개 밖에 없는 상태에서 17,500개에 도전해야 하는 절박함과 우리의 요구와 소망에 관계없이 합당성의 선행을 요하는 새로운 스테이크의 탄생은 그만큼 상관 관계가 복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의 목적은 완전한 인간의 복지의 달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적인 희생과 봉사로써만 쟁취가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움직이려면 그 시간표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율법에 호소해야 할 것입니다.

1979년은 양의 해입니다. 흠없는 어린양으로 상징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업을 전개함에 양의 해를 맞는다는 사실은 그대로 하나의 축복입니다.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준비보다는 일에 도전해야 할 필요의 새로운 확인이 좀더 달성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한 개의 와드가 합당한 가운데 성장하게

되면 그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많은 성도들이 몰려와서 주님의 사업에 참여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축복을 분배 받을 것입니다. 그 축복의 분배를 더욱 원활하게 수행해야 할 필요를 안고 또 다른 와드가 창조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물으실 때를 대비해서 1979년에 몇개의 스테이크를 준비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워야 하겠는데 그 대답을 얻을 때까지 일하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와드가 있는 곳에 내일 스테이크가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지도자의 말씀에 좇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윤곽이 잡힐 것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방법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살아 계신 예언자께서는 우리가 모두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흠 없는 어린 양의 모범을 좇아 오직 희생과 봉사로써 신권 선교 사업과 신권 계보 사업과 신권 복지 사업과 보다 능률적인 신권 의식을 수행함으로써 주님의 사업을 돕자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보다 넓게 시온의 스테이크의 장막의 터를 넓히는 일입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을 닮도록 노력하자는 권고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화난 모습에서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짐짓 개인적인 편견과 감정의 일그러짐을 주님의 의로우신 진노와 혼돈하는 착각에서는 속히 깨어나야겠습니다. 자기를 아프게 한 자를 용납하는 데 참으로 큰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희생입니다. 그것 없이는 주님의 사업에 전진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였다는 사실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이

유로 우리의 형제를 합당치 않게 비난하는 일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할 목표이어야겠습니다.

저는 수많은 내일의 스테이크와 수많은 내일의 지역과 또 그보다 큰 내일의 대단위 지역의 비전을 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훌륭한하신 이 땅의 지도자를 총관리 역원으로 부르실 것이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신전을 허락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인용해 드리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 모두에게 한해 동안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너희와 너희 주변을 정리하라.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집 곧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학문의 집, 영광의 집,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

“그러므로 너희는 경솔한 말을 모두 금하며 모든 웃음소리, 천박한 욕망, 교만, 경박한 마음, 그리고 일체의 악한 행위를 그치라.”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라 탐욕을 금하라. 복음이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이 서로 물건을 나누어 주기를 배우라.”

“게으르기를 그치라. 부정을 금하라. 서로의 결점찾기를 그치라…”

“무엇보다도 먼저 외투와 같이 사랑의 끈으로 몸을 둘러 싸라. 이는 완전과 평화의 끈이니라.”

“내가 올 때까지 지치지 않게 항상 기도하라. 보라 내가 속히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아멘.”(교성 88 : 119, 121, 123, 124, 125, 126)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



현남식에 참석한 신권 지도자들

## 한국 지역 재현남

지난 11월 12일 아침 6시 서울 제4와드에서는 요시히코 기꾸쨌 장로님의 감리로 한국 전역의 신권 지도자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한국 지역 재현남 의식을 가졌다.

서울 선교부장 하킨스 장로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모임에서 최 옥환 서울 스테이크 부장, 김 창선 서울 서 스테이크 부장, 장 재환 부산 선교부 부장단 제1보좌의 간증을 들었고 한 인상 지역대표가 한국 물론 약사를 소개하고 교리와 성약 128편 19~24절까지를 봉독했다.

이어서 서울 선교부 사무실 건너편 잔디밭에서 기꾸쨌 장로의 위임을 받아 이 호남 부산 선교부장이 간절한 현남의 기도를 올

렸다. 참석한 모든 신권 지도자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시온 건설을 위해 헌신할 것을 마음 속 깊이 다짐하였다.



현남 기도

## 서울 스테이크 대회

서울 스테이크는 지난 1978년 11월 4일과 5일 양일에 서울 제1와드에서 1978년 4/4분기 스테이크 대회를 가졌다.

이번 대회는 한국인으로서의 처음으로 지난 8월에 지역대표로 부름을 받은 한 인상 지역대표가 전 모임을 감리했다.

4일 토요일은 오후 6시부터 신권 지도자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는 최 동헌 부장이 연말 보고에 관한 제반 절차를 설명해 주었고 이어서 최 옥환 스테이크 부장이 선교 사업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서 가진 토요 대회에서는 “활동 위원회가 개인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가”를 주제로서 최철 고등평의원, 고 원용 고등평의원, 손 승은 감독, 최 옥환 스테이크 부장의 말씀이 있던 후 한 인상 지역대표의 말씀을 들었다.

한 인상 지역대표는 말씀에서 교회 활동은 개인을 발전시키는 것이며 교회 프로그램은 모든 회원 개인을 발전시키는 프로그램임을 강조했다.

5일 일요일은 아침 10시부터 일반 총회를 가졌다.

이 모임에서는 먼저 최 옥환 스테이크 부장이 스테이크 모든 회원은 하나로 단결

지지는 신권 지도자들



말씀하는 한 인상 지역대표

하고 연말까지 한 사람씩 교회로 인도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박 순중 축복사의 연차 대회 참석 보고를 들은 후 남 영진 부장의 말씀이 있었다. 이어서 최 동헌 부장의 연차 대회 참석 보고를 들은 후 아론 신권 합창단의 합창이 있었다.

끝으로 지역대표인 한 인상 장로의 말씀을 들었다. 한 장로는 말씀에서 계명을 지킬 것과 이 땅에 시온 건설을 위해 모두가 힘쓰라고 말씀하셨다.

이번 대회에서는 상계, 면목, 화양 지부가 와드로 승격되었고, 상계와드 감독에 이 홍직 형제, 면목와드 감독에 손 승주 형제, 화양와드 감독에 박 광식 형제가 각각 지지를 받았다.

이날 모임에서 대제사 15명, 칠십인 2명, 장로 11명이 탄생했으며 총 1140명이 대회에 참석했다.

지지는 성도들



## 서울 서 스테이크 대회

서울 서 스테이크는 1978년 11월 11일, 12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 제6와드에서 4/4 분기 스테이크 대회를 총관리 역원이신 요시히코 기꾸찌 장로님을 감리자로 모시고 성황리에 가졌다.

11일 토요일 오후 4시에는 신권 지도자 모임을 가졌고, 이어서 6시 30분부터는 “활동위원회가 교회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가”에 대한 주제로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 김 차봉 형제, 김 회남 고등평의원, 이 남선 제2보좌, 국 경숙 자매, 김 두성 형제, 이 도환 화곡지부장, 한 인상 지역대표, 기꾸찌 장로님의 말씀이 있었다.

지역대표 한 인상 장로는 “하나님께서서는 완전하신 음악가요, 미술가요, 문학가요, 그밖에 모든 분야에 완전하신 활동위원 전문가이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을 모두 가꾸어 크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12일 일반 총회는 오전 10~12시까지 있었다. 이날 대회에서 김 창선 부장은 “한국 땅을 하나님께 재헌납한 역사적인 날에 스테이크 대회를 갖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다. 이어서 김 차봉 제1보좌는 요나서를 인용하여 힘차게 선교 사업을 해야 할 것을 강조했고, 귀환 선교사 노 영자 자매의 간증을 들은 후 인천 합장하는 서 스테이크 성도들



말씀하는 기꾸찌 장로와 통역하는 한 인상 지역대표

와드 소속 홍 장석 형제 가족의 간증이 있었다. 이어서 하킨스 서울 선교부장, 이호남 부산 선교부장, 한 인상 지역대표의 간증이 있던 후 기꾸찌 장로님의 말씀을 들었다.

기꾸찌 장로님은 “오늘은 이 한국 땅을 재헌납한 특별한 날이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나무 가지의 한 가지임을”(야곱서 5장) 강조하셨다. 또한 기꾸찌 장로는 김볼 대관장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도들에게 더욱 많은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고 젊은 모든 청소년들은 선교 사업을 우선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준비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셨다.

이번 대회에서는 9명의 장로가 탄생되었으며, 1451명이 참석하여 전 회원수의 37%의 참석률을 나타내었다.



환송하는 신권 지도자와 성도들

## 헨리 아이링 형제 일행 내한

교회 교육 기구 수석 부교육감인 헨리 비 아이링 형제와 동 극동 지역 책임자인 후랭크린 디 데이 형제가 1977년 10월 31일 오후 2시 내한했다.

세계적인 화학자 헨리 아이링 박사의 아들이기도 한 아이링 형제는 하바드 대학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고 스탠포드 대학 교수를 역임한 후 리스 대학 학장으로 있다가 교회의 부름을 받은 석학이다.

11월 2일 오후 7시에는 400여명의 학생, 성도, 그리고 신권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신학 연구원에서 특별 강연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그는 우리 모두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이 우리도 구원 받기 위해 계획하고 힘들지만 그것을 인내와 노력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 계획에는 반드시 선교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3박 4일의 여정을 마치고 장도에 오른 일행은 한국 교회의 발전과 지도자들의 지도력과 의욕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광주 지방대회에 참석한 성도들



## 서울 서 스테이크 청년 음악회

서울 서 스테이크 독신 성인 주처 제2회 청년 음악회가 지난 11월 3일 6와드에서 있었다. 많은 재능있는 형제 자매들의 음악적 자질을 발굴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이번 음악회에서는 40여명으로 구성된 스테이크 합창단이 우리나라 가곡과 성가곡을 불렀고 작곡, 독창 및 피아노, 바이올린 합주, 중창 등 알찬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각자 평소에 쌓은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였다. 이번 음악회에는 약 35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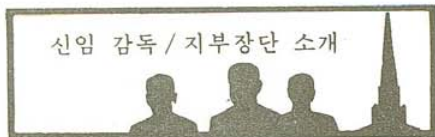
서 스테이크 합창단

## 광주 지방대회

광주 지방부는 금년도 4/4분기 지방대회를 지난 10월 22일 광주 학생회관에서 가졌다.

광주, 목포, 여수, 순천 등지에서 모인 500여명의 성도들에게 이 호남 선교부장은 "적극적인 신앙"을 강조하였다. 박 연순 자매는 "순종과 기도"를, 장 재환 부장은 "선교 사업과 순종"을, 김 백주 부장은 "경전과 지도자의 말씀에 순종" 등을 각각 권면하였다.

21일 토요일에는 지방대회 역원회와 주일학교 계간 모임 및 전시회 등이 있었다.



### 서울 스테이크

#### 상계와드

감독: 이 홍직  
 제 1 보좌: 김 학현  
 제 2 보좌: 장 용섭

#### 면목와드

감독: 손 승주  
 제 1 보좌: 이 응도  
 제 2 보좌: 조 규성

#### 화양와드

감독: 박 광식  
 제 1 보좌: 권 중열  
 제 2 보좌: 박 승환

### 서울 서 스테이크

#### 수원지부

지 부 장: 문 시우  
 제 1 보좌: 정 지현  
 제 2 보좌: 이 규봉

## 박 복기 자매 전국 음악 경연대회에서 입상



박 복기 자매

지난 9월 28일 청주 여자 사범대학에서 열렸던 전국 음악 경연대회의 성악부에서 청주지부의 박 복기 자매가 영예의 1위를 차지했다.

평소에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경전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해온 박자매는 이번 대회에 입상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일에 노력을 한다면 반드시 그 댓가로 큰 축복을 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간증하였다.

### “알 림”

인쇄료, 제책료 등 제반 생산가 인상으로 인하여 성도의 벗 구독료를 1979년 1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인상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계속 구독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1년 정기 구독료 1,800원  
 일반호 1권 구독료 200원  
 특집호 1권 구독료 400원

성도의 벗 사 드림

#### 그림 설명

표 3: 1847년 불 윈터 쿼터스를 지나는 개척자의 선발대. 시시 에이 크리스탄슨 그림 (1875년경) 네버라스카주 오하마 근처의 윈터 쿼터스는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여행하는 성도들이 여행하는 도중에 잠시 머물러 정착하던 곳이였다 첫해 겨울에 7000여 개의 오두막집에서 3,500명이 성탄절을 보냈다 이 그림은 브리감 영 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다. 코펜하겐에서 개종한 화란인 크리스탄슨은 이 역사적인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과 만나 들은 내용을 토대로 이 그림을 그렸다. 1857년 그는 노르웨이인 신부와 함께 유타로 이주하였다 그는 제 7대 손수레단의 부대장이였다

그는 그의 작품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이 모든 일에서 주님의 손을 볼 수 있습니다...역사는 많은 것을 간직하려고 하지만 예술은 다음에 오는 세대가 성도들이 겪었던 고난을 이해할수 있도록 생생하게 설명해줄 것이다."